

인천 앞바다에서 떠나는 대광어 낚시

만나고 싶은 괴물, 그리고 도전

글. 민병근 OBS 차장



2024년 5월 10일 수확물들과 단체사진



정신없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를 위한 낚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매년 나에게 ‘한 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대광어 낚시! 아직도 그 짜릿했던 손맛을 잊을 수가 없다. 선거로 올해는 조금 늦었지만, 항상 함께하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기대 반, 설렘 반인 마음으로 출발한다.

대광어란 무엇인가?

대광어는 이름 그대로 커다란 광어이다. 몸길이 70cm 이상에 무게는 3~5kg 이상인 괴물 같은 녀석이다. 보통은 깊은 해저에서 서식하나 산란기인 5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연안 근처로 이동하여 활발한 먹이활동을 시작한다. 이때를 노려서 괴물을 만나기 위해 전국 낚시꾼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다운샷? 외수질? 결국 병행 출조

출발 전날 대광어 낚시 장비를 챙기고 있는 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물색이 많이 흐려 작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운샷과 외수질, 병행 출조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장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병행 출조 소식을 전했다. 물이 안 좋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험상 병행 출조를 하는 날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운샷과 외수질, 병행 출조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 다운샷이란?

루어낚시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바다에 응용한 방법으로, 미끼를 바닥 가까이에 위치시켜 바닥층을 공략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낚싯줄에 바늘을 먼저 묶고, 그 아래쪽에 봉돌을 연결하여 바닥과 바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를 통해 바닥에 서식하는 어종을 공략할 수 있다. 이 기법은 특히 바닥 가까이에 머무는 광어, 우럭, 노래미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이다. 봉돌을 바닥에 끌면서 낚시를 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바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바닥 장애물을 피해 채비 걸림 없이 낚시를 지속할 수 있다. 웬이라 불리는 가짜 미끼를 사용하므로 지렁이 같은 생물을 사용하는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



웬(가짜 미끼)



다운샷으로 잡은 대광어

🎣 외수질이란?

주로 선상 낚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를 조류에 맡기고 흘러며 자연스럽게 생미끼를 흘려보내는 기법이다. 보통 살아있는 새우 미끼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일정 높이로 봉돌을 띄워서 운용한다. 봉돌을 바닥에 붙이는 다운샷에

비해 밑걸림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농어를 주 어종으로 하다 보니 바닷속 큰 여나 암초 주변에서 낚시하므로 밑걸림을 피할 수는 없다. 자연스러운 미끼 움직임을 통해 어종의 경계를 줄이고, 큰 어종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미끼를 사용하므로 바닥고기인 광어나 노래미 우럭 등도 잘 낚인다.



외수질로 잡은 농어

🎣 병행 출조란?

한 번의 출조에서 두 가지 이상의 낚시 기법이나 어종을 동시에 노리는 출조 방식을 말한다. 다양한 어종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류나 날씨 등 낚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준비물과 장비가 많아지고 채비를 자주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법에 대한 숙련도도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

두근거리는 새벽, 여정의 시작

새벽 3시, 졸린 눈을 비비며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은 피곤하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한다. 아침은 배 위에서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해결하는데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때 먹는 컵라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느낌이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너도나도 부푼 기대를 안고 출항을 기다리는데 해마다 대광어 낚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지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만 같다. 하긴 한번 대광어를 낚는 손맛을 맛보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 이제는 익숙해진 선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이어진다. 안타깝게 최근 며칠 물이 뒤집혀서 조항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며 언제 한 마리 걸릴지 모르니 채비를 단단히 하라고 조언하신다. 어복이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법! 용왕님께 어복을 부탁드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대광어 낚시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

익숙해진 바다, 그리고 기다림

몇 해를 다니다 보니 인천 앞바다도 이제 익숙한 느낌이다. 파도의 흔들림과 짠 바다 향기를 가득 담은 바람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만 같아 한결 가벼운 기분으로 낚시를 시작한다. 하지만 선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질이 생각보다 적었다. 사무장은 “지금 물이 탁해서 미끼가 대광어 눈앞에 있어야 낚을 수 있단다. 오늘은 실력이 아니라 운입이다. 운이요!”라며 귀뜸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대감은 어쩔 도리가 없다. 오랜 기다림 속에 마음만 점점 초조해진다.



2025년 6월 13일 조황

드디어 찾아온 대(?)광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풍경을 만끽하며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낚싯대 끝이 툭! 하고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지는 강한 당김이 온몸을 바짝 긴장 시키기 시작했다. 드디어! 드디어! 왔구나! 릴을 조심스럽게 감기 시작한다. 순간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고 오랜 기다림에 눈물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작년에 느꼈던 그 묵직함과 강하게 날 끌어당기던 손맛이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마침내 수면으로 올라온 자그마한 그림자! 많이 봐줘도 40cm였다. 허탈한 마음과 멧쩍은 웃음만이 남았다. 이후에도 한 번 더 입질이 있었지만 역시나 비슷한 크기에 내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사이즈가 올라왔다.

나를 성장시키는 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낚시 실력도 늘고 장비도 좋아지지만 어쩌면 더 많이 달라지는 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전에는 큰 고기를 낚는 데만 열중해서 바다와 나의 승부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다에 떠 있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파도에 반짝이는 햇살,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고기 자랑 한마디까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만의 소중한 기억이 된다. 물론, 여기에 월척까지 낚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낚시는 인생과 비슷해서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다. 덧붙여 배 위에서 점점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느낌은 내 착각일 것이다.



24년 5월 10일 대광어를 낚은 기념사진

이것도 떠주나요?

부두에 도착해서 단골 횃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다. 왜냐하면 두 손이 가볍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괴물 대광어를 두 마리나 잡아 양손 가득 묵직한 자신감으로 방문한 곳이지만 올해는 수줍은 새색시처럼 조금 쑥스럽기까지 했다. 다른 사람이 잡은 대광어를 손질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이것도 떠주나요?”라고 물어본다. 사장님도 내 마음을 아셨는지 “물론이죠”라며 환하게 웃으시며 내가 잡은 광어 두 마리를 저울에 올려주었다. 크기는 작아도 나름 빵이 튼실해서 두툼한 살점을 받을 수 있었고 함께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신선한 광어회를 맛볼 수 있었다.

낚시 그 후의 여운

낚시가 다른 이에게는 단순한 취미 생활로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인연 앞바다에서 즐기는 대광어 낚시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원동력을 주는 소중한 체험이다. 아쉽게 이번 출조에서는 대물을 영접하진 못하였지만, 그 아쉬운 여운 또한 낚시에 매력이라 조심스럽게 되뇌어 본다. 마지막 사진은 그 여운을 담아 작년에 대광어 낚시에 성공했던 지난 나의 모습을 담아본다. 📸

66

예전에는
큰 고기를 낚는 데만 열중해서
바다와 나의
승부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다에 떠 있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파도에 반짝이는 햇살,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고기 자랑 한마디까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만의 소중한 기억이 된다.

99